

데스크 시각

오승희와 구니요시



박진현 편집부국장·문화전문기자

4년 전 광주 남구의 양립역사 문화마을 경관개선사업(2008~2017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K씨는 요즘 양립동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100년 전의 근대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307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지만 돈 들인 만큼 만족스런 성과를 찾기 힘들어서다.

콘텐트 개발보다는 편의시설 위주의 하드웨어에 치중하다 보니 양립동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한 것이다. 30억 원을 들인 순교자 기념공원과 선교사 묘역 정비는 역사의 흔적을 지웠고, 83억 원을 들인 공용주차장은 고즈넉한 정취를 날려 버렸다.

무엇보다 K씨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양립동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전담공무원이 없다는 것이다. 남구청의 잦은 인사로 K씨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3년 동안 담당 공무원이 3명이나 교체됐다. 업무를 파악하고 팔을 걷고 나설 때쯤이면 다른 부서로 옮기다 보니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양립동보다 1년 늦게 스타트를 끊은 대구시 중구 근대골목은 전문 공무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근대골목에 있던 옛 이야기를 되살린 골목투어가 문화관광부의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데에는 오승희 주무관(대구 중구 문화관광과)의 열정이 큰 몫을 했다.

자주 바뀌는 '문화공무원'

지난 2009년 문화관광과로 배치된 오 주무관은 '근대골목 불바닥'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후 6년 동안 골목해설사 발간, 골목투어 강의 등 근대골목을 부활시키는 데 주력했고, 그 공로로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문화·관광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됐다.

요코하마시의 구니요시 나오요키(66·전 도시정비국 수석 디자이너) 역시 행정의 달인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요코하마가 세계적인 창조도시로 변신한 원동력은 40년 동안 도시정비국을 진두 지휘해 온 구니요시의 전문성이었다. 지난 1971년 요코하마시 도시디자인 연구원으로 들어온 구니요시는 공공디자인으로 도시를 재창시키는 데 올인했다.

젊은 시절 미국에서 건축을 전공한 그는 개항기 역사의 흔적이 있던 요코하마의 근대건축물과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창의도시 요코하마'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요코하마시의 디

자인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지만 구니요시 덕분에 일관된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사실 한 조직의 문화업무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전문성을 더 필요로 한다. 문화하면 다 식견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경험과 노력이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문화행정은 상당히 '비문화적'이다. 지난 2005년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사업과 시 문화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한 문화체육정책실은 그 결정판이다. 잦은 인사와 낮은 전문성으로 문화 이슈들이 얽힐 때마다 컨트를 타워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문화컨트를 타워 시급

특히 평균 1년 미만의 문화정책실장의 재임기간은 '문화'에 대한 광주시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정부 파트너인 문광부 산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과 비교하면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2월 취임한 김종률 단장의 뒤를 이어 현 김성일 단장이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데 반해 문화정책실은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 4명이 거쳐갔다. 업무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시가 오히려 갈 길 바쁜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맥을 끊은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흥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파동으로 개혁 요구에 직면한 광주비엔날레재단의 사무처장을 '갑작스럽게' 문화정책실장으로 발령냈다. 이 때문에 매일 숨가쁘게 돌아가는 재단의 혁신 과정에서 신입 사무처장은 '낮선' 환경에서 업무를 익혀느라 바빴다.

광주시 문화행정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컨트를 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 개관을 앞두고 전당 주변을 둘러싼 10여 개의 문화·관광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사람답이 없어 일부 사업의 경우 중복되거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기자가 문화정책실에 전당 주변의 금남로와 관련된 사업현황을 알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쯤되면 '문화수도'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울 뿐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서울시가 모든 공공 프로젝트를 관장할 '총괄 건축가'(City Architect)로 건축가 승효상을 영입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수도도 우뚝 서려면 (특정분야에 한해) 전문 공무원제는 물론 장기적인 비전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문화 컨트를 타워가 시급하다. 더 이상 미룰 여유도 명분도 없다. /jhpark@kwangju.co.kr

社說

새정치 호남 정치권 변화·혁신 필요하다

광주 출신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을 맡음에 따라 계파 갈등을 거듭했던 당내에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특히 혁신위원회에 진노 인사 배제와 호남 국회의원 40% 교체, 4선 이상 중진 의원 용퇴 등을 주장한 조국 서울대 교수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호남은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위의 갑날이 호남 정치권을 향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와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치러진 두 차례의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경원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잇따라 당선돼 새정치연합과 지역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변화를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도 새정치연합에 등을 돌린 호남 민심을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으로 호남지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는 달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위적인 '호남 물갈이'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황주홍 전남도당 위원장은 "혁신위는 진노 파관주의 청산 등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호남 물갈이라는 '하책'으로 혁신의 책무를 넘기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호남에서의 물갈이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 일부는 입직에 안주하면서 지역 현안조차 방관해 온 게 사실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 호남선 KTX 서대전 경유,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제정 문제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불신만 키웠다.

혁신위는 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민들이 수긍할 만한 혁신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민심 이반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정 부분의 호남 물갈이는 지역의 요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선 KTX 예약난, 속히 편수 늘려야

지난 4월 개통 전후 서대전역 경유와 비산 요금, 긴 운행시간, 송정역의 주차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호남선 KTX에 최근에는 예약난까지 겹쳐 이용객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승객이 급증하면서 일부 시간대는 매진 사례가 빚어져 증편이나 대형열차 대체 요구까지 일고 있다.

호남선 KTX는 개통하자마자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 평일 특정 시간대와 주말·휴일, 연휴에는 열차표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오는 7월 광주U대회와 여름 휴가철,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으로 승객 수효는 크게 늘어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전 6~8시 하행선에는 광주·전남지역 관광객을 찾는 수도권 승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호남선 이용시간의 새로운 '피크타임'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 시간대 운행되는 KTX 산천의 좌석수는 363석에 불과해 넘치는 수요

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전남도가 이 시간대에 931석을 보유한 구형 KTX-1로 대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코레일 측은 내년 수서발 KTX 개통 전까지는 증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대책 없이 앞으로 2년 동안 현재의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하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호남선 KTX 개통 전부터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보란을 통해 대폭 증편을 촉구한 바 있다. 고작 4회만 증편해 놓고 고속열 운송 기능의 대폭 확대라고 주장한 당국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KTX 좌석은 '있으면 팔고 없으면 마는' 시장의 상품이 아니다. 국민 불편을 즉시 해소하는 국가 기간 철도사업으로써 공적 기능을 충실해야 한다. 이제는 승객 증가라는 증편의 필요성이 시간대별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 증편 열차를 재배정하는 것이 코레일 측의 의무다.

은편칼럼

등골 부서지는 5월



심명섭 전남대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장

날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리고 잊지 못할 스승이 있는 사람들은 모처럼 맞은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은사님과 함께 확장생활을 더하며 보면서 사제지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그리고 수험생을 둔 학부모는 몇 달 후 있을 수능에서 대학을 치라고 부처님께 두 손을 합장하여 기도드리는 시간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래서 감사의 말이나 사랑의 말이라고도 부른다. 정말일까? 이 5월에 모든 가정이 감사와 사랑으로 넘쳐났을까?

포털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월의 각종 기념일에 평균 50만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에서조차도 보너스는 주지 않으면서 경기가 부양되고 나라살림에 도움이 되니 5월에겐 써라 써라 다 그랬다. 그렇지 않아도 연휴가 두 번이나 끼었고 초·중등학교에서는 이를 하여 휴일 전후로 효도방학이나 뭉치 해서 쉬는 날이 많았으니 아무래도 어느 가정이나 지출이 늘었을 게다. 더구나 부모들의 아이들에 대한 애뜻한 사랑, 자식들의 부모에 대한 감사, 제자들의 스승에 대한 은혜, 부부간의 식지 않은 애정, 중생들의 부처님에 대한 기도 이 모두가 돈

으로 계산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지금은 사랑, 감사, 은혜, 기도라는 이러한 숭고한 인간의 성정은 지출에 비례하여 그 적도가 매겨진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어느 가정이고 수치타산이 허물어졌을 게다.

이쯤 되면, 소박한 월급쟁이나 그날 벌어들인 돈을 여유롭지 못한 가정에서는 5월이 결코 계절의 여왕도 아니고 감사와 사랑의 달도 아닐 것이다. 오히려 명절 때보다 더 많이 축이 났을 것이니 말이다. 실제로, 아이들에게도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고, 부모님에게도 넉넉하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5월이 도리어 슬프다고 하신 이웃들의 한숨도 들었다. 축하하지 않으면 안 될 혼사 축의금 봉투를 채워 건네주는 우리 집 에 엄마의 미소에도 마이너스 살림의 흔적이 뚝뚝 묻어 있었음을 보았다.

5월의 사정이 이러하니, 5월은 '마이너스의 달', '등골브레이크의 달'이라는 말이 어느새 유행해 버렸다. 마이너스의 달이야 그렇다 쳐도, '등골브레이크'는 대단히 폭력적인 말로 들린다. 부모 등골을 부순다는 의미의 이 말은 원래 철없는 행동을 저질러서 부모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자식을 빗대는 말로 쓰였다. 그러다가 요즘은 자타를 가리지 않고 경제적 부담을 심각하게 주는 상품이나 존재가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5월은 바로 가정 살림을 심각하게 갇아 먹는 계절이요, 가정을 옹는 과다지출의 계절이니 저렇게 폭력적인 신조어가 유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등골 부서지는 5월이 서너서너 가고 있다. 사랑, 감사, 은혜, 기도는 돈에 묻히고, 등골이 부서진 가정의 한숨소리는 아름다운 계절의 바람에 휩쓸려 저만큼 지나가고 있다. 분명, 과도한 지출이 기념일을 제정할 의미는 아닐 것이다. 돈으로 가늠하는 선물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경조사 문화도 달라졌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아무 죄 없는 5월을 닦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5월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오월은 어떻게 보냈는가를 생각하면 보너스 달을 오월로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광주U대회, 명품 광주 도약 절호의 기회



정병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장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가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광주 전역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2009년 대회유치에 성공한 이후로 선수촌 건립, 경기장 조성, 주변환경 개선 등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고 또한 U 대회 행사의 꽃인 성화도 프랑스에서 채화돼 오는 6월 2일 광주에 도착할 예정이며 대회 성공을 위해 만전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170개국에서 2만 여명 선수단과 임원들이 우리시를 찾아 크게는 우리나라, 작게는 우리 광주의 이미지를 가슴에 품고 자국(自國)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도시에 대한 쾌척한 느낌의 이미지는 경기장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것과 도시 전체의 분위기에서 풍기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의해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회 기간 동안 해외 선수단과 임원들은 편안한 선수촌과 편리한 경기장에 대한 이미지와 함께 광주 시민의 신속민 친절함, 거리의 청결한 이미지에 대한 느낌을 오랜 시간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한 준비를 위해서 시민 각자가 광주의 민주정신과 신속민 시민의식으로서

홍보대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교통법규 등 기초질서 지키기, 청결한 주변 환경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

며칠 전 광주시가 '기초질서 지키기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5개 지구구와 합동으로 하계 U대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고무적인 소식이 들린다.

우리 협회에서는 평소 '다불어 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광주시 슬로건에 맞게 매주 수요일 시청 민원실에서 '무로 부동산 상담 창구'를 운영중에 있으며 평소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제반 문제에 대한 상담해드리며 거래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기관과 함께 분기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지부여성 위원회에서는 분기별 테마를 갖춰 광주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불어 사는 명품 광주 공인중개사 협회를 만들 것이다.

체계적인 큰 잔치인 하계 U대회 성공을 위해 우리 협회에서도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명품 광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2500여 회원의 마음을 담아 오는 31일 송원대학교 운동장에서 '공인중개사의 날' 제정 기념 및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 개회를 지원하는 회원 한마음 행사를 준비하고 체육대회를 통해 공인중개사 회원들의 단합된 마음으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시민 상대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대회 기간에는 개회식과 폐회식 등 각종 경기장에서 서포터즈 등 응원으로 참여하고 각 나라의 선수단을 비롯한 광주를 찾는 내·외국인 손님들에게 광주의 송고한 민주성자의 불거리, 광주의 특산물의 먹거리, 길안내 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느 대회 도시보다 성공적으로 대회가 되었다는 각오로 내 집에 손님을 모신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회를 마치고 전 세계에서 찾아온 모든 손님들이 깨끗하고 친절한 광주,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광주, 항상 배려하는 광주를 추억으로 만들어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1952년 2월 10일은 몸시도 추웠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대한통신전남지사 2층 전남일보 편집국에는 숯불화로 하나가 놓여있을 뿐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김남중 사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전 사원이 나와 바쁘게 움직였다. 기자들은 얼어붙은 손을 화롯불에 쪼이고 입으로 불어가면서 원고를 쓰고 제목을 붙였다. 원고를 받아든 사원은 500여 m 떨어진 충장로 4가 인쇄공장까지 몇번이고 왔다갔다 했고, 남일보를 간간으로 옛 전남매일신문을 통합해 1980년 12월 1일자로 재창간한다.

가서 조판을 시작했다. 원고에 따라 활자를 고르고(문선), 이를 판에 맞춰 넣는(석자) 과정을 거쳐 조판을 마치자 기자들이 현장에서 교정을 봤다.

오후 4시경 역사적인 창간호가 평판 인쇄기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티블로이드판 2개 면을 받아든 전 직원들은 감격의 눈시울을 적셨다.

2월 11일자로 찍힌 전남일보 창간호는 2000여 부가 인쇄돼 광주시내에 뿌려지고 지방에도 발송됐다. 1면 머릿기사는 '판문점 협상'을 동경발 UPI통신으로 실었고, 사실에 해당하는 시론은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지령(紙齡) 2만호

전남일보의 지령을 그대로 이어받아 1994년 5월 13일 지령 1만5000호를 돌파한데 이어 오는 28일자로 역사적인 지령 2만 호를 맞는다. 63년 3개월 17일만의 대기록으로 날짜로 따지면 2만 3118일만이다.

광주일보의 지령 2만 호는 호남지역 최초이자 전국 일간지 가운데서도 12번째 기록이다. 광주일보가 2만 번째 신문을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애독자들의 성원이 절대적인 힘이었다. 애독자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